

행사스케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 축산인 총결기대회 개최

“FTA 반대, 생존권 보장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 축산인 총결기대회 개최

글·사진 : 편집부

국내 축산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의 축산인들이 하나로 뭉쳤다.

지난 7월 1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축산인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전국 축산인 총결기대회’를 열었다. 한국오리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7개 생산자단체의 회원들은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 정부의 계속되는 FTA체결에 축산농가의 생존권 확보를 촉구, 축산인의 힘을 보여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이날 결기대회에



①



행사스케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3



4



5



6



7

1 전국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1만여명의 축산인 2 미·EU FTA에 포획된 국내 축산업 (퍼포먼스) 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4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승호회장, 이창호회장, 남호경회장) 5 투쟁을 외치고 있는 이창호 회장 6 농민가를 부르고 있는 전남도지회(이경현 나주시지부장, 정정우지회장) 7 투쟁을 외치고 있는 우리 협회 회원들

서 ▲ 대책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 축산업 선진화 반대 ▲ 한우 값 및 목장 원유가 현실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 AI(조류인플루엔자) 및 FMD(구제역)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과 축종별 축산농가 생존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업 재건대책은 뒷전인 채 FTA 체결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축산농민의 생존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FTA 체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이 발표한 결의문의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먼저,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을 중단하고, FTA체결에 따른 소득보전대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90%인 피해보전 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폐업을

○ 행사스케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원하는 농가의 경우 향후 5년간 소득을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축산물 수급불안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한우, 육우가격은 폭락, 돼지가격은 금돼지라는 수식어를 낚으며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오리고기는 살처분으로 인해 총 오리 수급감, 수입량이 대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값싼 냉동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이 성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단협은 “가격이 폭락한 축산물에 대해선 시장논리에 맡기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반면, 가격이 뚝 떨어진 축산물에 대해서는 물가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수입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은 축종별 수급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은 “**국내 축산업을 망가뜨리는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은 절대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오리 축사시설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날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대회사에서 “수입 망령에 빠진 이 정부가 구제역 이후 축산업 재건대책은 뒷전인 채, 축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을 빌어 축산농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또 최근 한우, 육우, 닭, 오리 산지가격 폭락,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사료 값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전국이 폭우피해로 들썩이던 7월 15일, 장맛비도 멈춘 이날 궐기대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으며, 우리 협회 전남도지회 및 전북도지회에서도 참석하여 결의문 선언을 채택하고 농민가를 재창, 1만여명의 축산인들과 목소리를 함께했다.

① 묵념을 하고 있는 우리 협회 회원들 ② 충북 보은에서 농가들과 함께 상경한 어머니소 한마리가 대형 한우 '영정' 앞에 서있는 모습 ③ '오리 축사시설 지원대책 수립 요구' 현수막 ④ 한국오리협회 깃발